인도 부처님 오신날에 한국전통 욕불·수기식

16일 인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인도JTS는 1,000명의 마을주민과 학생들을 초청해 불기 2547년 봉축법회를 거행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의 지도로 거행된 봉축행사는 전통적인 힌두교도로 살아오던 둥게스와리 지역의 불가촉천민들에게 부처님 탄생설화와 그 의미를 설명하고, 1,000여명의 참가자 전원이 생애 처음으로 욕불의식을 해보고 수기를 받는 의식이 진행됐다.

봉축법회가 끝난 후 인도 JTS 주변 자그디스푸르, 두르가푸르의 주민 천여명에게 옷을 나눠주는 행사도 열렸다. 한국 JTS는 인도 불가촉천민들을 돕기 위해 한국의 기증자들로부터 중고의류를 기부받아 그 중 5만벌을 금년 초에 인도로 이송했으며,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시작으로 전정각산 주위 16개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의류지원을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저녁 보드가야 마하보디 대탑 앞에서는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봉축등을 들고 2시간 동안 보드가야 국제사원구역의 주요도로를 행진하는 제등행렬이 펼쳐졌다.

인도=김동훈 통신원

성보박물관 방범시설 안심못한다

본사, 15곳 조사 "유사시 효과적 기능 장담못해"

박물관·전시관 따라 시스템 큰 편차

시설노후 오작동도… "지속 점검 필요"

국립공주박물관에 강도가 들어 10분 만에 국보를 강탈해간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불자들의 시선이 성보박물관에 모아지고 있다.

본지가 현재 개관 중인 성보박물관과 유물전시관(총 15곳)을 전화로 확인한 결과, 일단 방범시설 설치는 '안심해도 되는 수준'이지만, '유사시'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다.

시설설비 면에서 보면, 기본적인 방범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화상감시시설(CCTV)과 자동경보시스템(SECOM, CAPS 등)은 거의 모든 성보박물관과 유물전시관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합격점을 받았다. 화상시설과 짝을 이루는 감지시설(열감지기, 적외선감지기 등)의 경우에도 개관한 지 오래 된 S사찰, P사찰 등 2~3곳을 빼곤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월정사, 직지사, 통도사처럼 '경비 초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찰도 있고 모든 사찰이 야간 경비조를 편성, 사내 순찰을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시설이 유사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만큼의 상태인지를 따져볼 때는 '안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한정호 학예연구사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따라 시설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P사찰이나 B사찰의 경우처럼 설치된지 5년이 넘을 정도로 시설이 낙후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설치 후 지속적인 점검 시스템이라는 지적도 있다. 승원스님(월정사 성보박물관)은 "시설이 노후 되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아예 작동이 안 될 경우도 많다"며 "지속적으로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성보박물관 관계자는 "공주박물관의 경우처럼 설치돼 있어도 꺼놓을 때가 많거나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해당 박물관 종사자가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종단 내 성보박물관의 장비와 시설, 인력, 운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황조사를 7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광주사암련, '5 · 18' 23돌 민주영령 위로 천도재

광주사암연합회(회장 현지, 원효사 주지)는 5.18 광주민주항쟁 23주기를 맞아 17일 광주 망월동 국립 5.18 묘역에서 민주영령 추모 천도재를 봉행했다.

영산재 의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광주사암연합회 회장 현지스님, 월인(법륜사), 태현(대원사), 지각(동원사), 명신(연화사)스님과 신도 5백여명이 동참했다.

현지스님은 추모식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민주영령들의 5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지리산 천일기도 회향사업 가시화

범종교계 100일 기도 등

지리산의 뭇 생명과 좌우익 희생자를 위해 시작된 '생명평화 · 민족화해 · 평화통일을 위한 지리산 천일기도' 회향일이 6개월 정도 앞둔 가운데 회향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리산생명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실상사, 한생명 등은 15일 생명평화의 등 밝히기를 시작으로 850일째인 6월 15일 평화의 돌탑쌓기 천인위원회 발족, 900일인 8월 4일 생명평화를 여는 기도의 밤, 901일째인 8월 5일부터 범종교계 100일기도, 국민동참 100일 기도 릴레이, 11월 11일 천일기도 회향 전야제, 11월 12일 회향식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김태복 장군 사건' 담당 군사법원장 변호사로부터 향응접대 혐의 피소

김태복 장군의 부당한 재판을 주도한 군사법원장이 사건 관련 변호사로부터 향응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태복 장군은 19일 "7일자로 군사법원장 박 모 대령을 직권남용, 공문서 변조 및 향응성 접대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장군은 고발장에서 "박 모 대령은 2002년 12월 후배 군 판사 4명과 함께 c모 변호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I호텔에서 식사를 대접 받은 뒤 인근 역삼동의 한 룸살롱에서 수백만원대의 뇌물성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군은 같은 날 여단장 재직 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물 심의 담당장교였던 군보심의장교 최 모 소령도 '위증' 혐의로 국방부 검찰에 고소했다. 김 장군은 "재판과정에서 위증,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을 저지른 나머지 3명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준비된 결혼으로 행복가정 꾸리기

불교여성개발원 강좌

'가정의 위기'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결혼 현실과 이혼 원인을 진단하고 준비된 결혼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한 강좌가 마련된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 이하 개발원)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6일과 7월 3일, 10일에 혼인준비교실 '준비하는 결혼 행복한 가정'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경전에 나타난 결혼관과 생명의 존엄성, 아름답고 건강한 성문화, 결혼생활에 대한 전망과 설계 등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동국대 가정교육학과 백경임 교수와 성균관대 철학과 이영호 교수, 이윤정 불교여성개발원 상임위원 등이 맡는다. 개발원은 오는 10월 부산에서도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02)722-2101

여수령 기자

"북 개성공단 유적파괴 우려"

유호수 문화재위원, 신도시건설 유의 필요"

남북 합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성 공단' 조성 사업이 유적 파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박물관이 22일 개최한 '고려시대 개성과 경기' 학술 세미나에서 장호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은 "북한의 공식 발표로는 개성 지역의 유물 · 유적이 절터 40여 곳 등 148곳이지만 문헌 기록에 따르면 개경 일대에는 절만 70여 곳이 있었고 왕릉도 29기가 있어야 한다"며 "확인된 유적이 개성과 서쪽의 개풍군에 몰려있는 이유는 나머지 지역이 군사 접경 지역이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성지역의 문화유산 현황과 보존방안'을 발표한 장 위원은 "공단 지역은 이제까지 확인된 문화유산이 많지 않으나 조사에 따라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공단 주변의 신도시 건설의 경우 아직 문화유산 분포 현황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결정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제1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

이인영 민주당 구로갑위원장

'제1회 고 박종철인권상'에 이인영 민주당 구로갑 지구당 위원장이 선정됐다.

고 박종철인권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지하)는 23일 △1987년 당시 전대협을 이끌고 민주화 운동의 승리를 얻어내는 데 크게 공헌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을 수상자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6월 10일 오후 5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목탁소리 생명 살리는 한길로

천미희 (부산주재 기자)

경부고속철도는 천성산과 금정산을 뚫고 지나가게 될 것인가? 시민종교대책위원회와 정부, 건교부가 합의한 대안노선 및 기존노선재검토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르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은 6월 30일 제출될 1차 조사 보고서에서 듣게 되어 있다.

그러나 20일 열린 '생명의 대안은 없다'라는 주제로 열린 경부고속철 금정산 천성산 관통반대를 위한 전국 생명연대 토론회에서 "6월 30일까지는 사실상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성산보존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녹색평론, 통도사환경위원회, 습지보전연대를 비롯 50여 개의 전국 환경 시민단체가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선재검토위원회 합의서에 기존 노선 백지화 원칙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문제제기 당사자인 내원사를 제외시킨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시민종교대책위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활동을 펼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금정산과 천성산을 지키려는 노력은 시민종교대책위와 천성산보존대책위가 나름의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노선재검토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즈음이면, 지율스님과 윤희동 신부 등은 천성산과 생명의 가치를 알리는 길거리 특강, 천성산 물 마셔보기 체험 등으로 다시 거리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내분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것은 환경운동의 힘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할 뿐이다. 이제 누가 어떠한 길을 가느냐, 누가 옳으냐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금정산과 천성산을 지켜내어 생명의 대안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로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정신과 육체 두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신비의 요가
자격증 획득을 위한 특별 강좌

요가의 효능 및 방법
바른자세와 호흡을 통하여 폐와 내장기관을 청소한 뒤 해맞이 운동 12가지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개강일시 및 장소
▶ 서울 : 6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6개월 간)
▶ 기흥 : 6월 8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6개월 간)

① 물구나무서기(Sirshasan)
기억력, 사고력, 집중력이 강화되고 시력, 청력이 좋와지며 신경이 튼튼해진다.

② 척추곧세우기(Sarangasan)
갑상선, 심장혈압, 비만에 좋고 목과 가슴부위가 튼튼해지고 불면증, 우울증이 치료된다.

③ 쟁기포즈(Halasan)
등, 어깨, 팔, 근육이 강화되고 소화가 잘 되며 변비, 불면증이 없어진다.

④ 물고기자세(Matsyasan)
혈액순환이 잘 되고 폐활량이 늘어나고 굽은 어깨가 펴지고 중추신경이 발달하여 충치가 예방된다.

⑤ 앞으로 굽히기(Paschimothanasan)
비만을 치료하고 소화력을 높이고 뼈마디를 부드럽게 하고 당뇨병을 치료한다.

⑥ 코브라(Bhujangasan)
척추를 튼튼하게 하고 요통 류마치스를 치료하며 체온조절이 잘 되 자궁이 튼튼해진다.

⑦ 메뚜기운동(Salabhasan)
장, 췌장, 간장 등을 튼튼하게 하고 허리, 등, 팔을 유연하게 한다.

⑧ 활(Dhanurasan)
만성변비, 소화불량, 간무력에 좋고 굳은 뼈를 펴준다.

⑨ 척추반비틀기(Ardha · matsenbrasan)
힘줄이 펴지고 혈액공급이 원활해지며 특히 관절에 좋다.

⑩ 까마귀포즈(Kakasan)
팔과 목 어깨를 튼튼하게 하고 손가락, 팔목, 근육이 늘어나 무기력증이 없어진다.

⑪ 손과 발포즈(Padahasthasan)
허벅지 뼈가 부드러워지고 체지방이 없어지며 두뇌에 혈액공급이 잘 된다.

⑫ 삼각형(Thikonasan)
월경불순, 골절건강에 좋으며 척추신경과 내장기관이 좋아진다.

세계전통요가실천본부 · 세계젠요가학교
본 부 : 경기 화성시 동탄면 중리 213번지 / 전화 031) 375-0778
서울교육원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한국불교금강선원 02) 969-2410